

“검사되면 23억 쉽게 빌릴 수 있나”

박지원 “15억 빌려준 사업가와 해외 골프여행”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들 예금액·공안통 경력 집중 추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산 축적 과정 의혹과 공안사건 처리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천 후보자에 대해 강남의 고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의 급전거래 의혹과 공안통으로서의 전력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권의 도덕성 공세를 차단하면서 천 후보자의 인식 및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재산 의혹=민주당 의원들은 천 후보자가 신사동 H아파트를 28억여 원을 주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친동생으로부터 5억원, 지인인 박모씨로부터 15억5천만원 등 총 23억5천만원의 빚을 진 것에 대해 추궁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민은 검사가 되면 23억5천만원 정도는 쉽게 빌릴 수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며 “차용 내역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안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포괄적 뇌물죄라 판단하고 금융정보를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천 후보자의 아들이 연간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예금은 계속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천 후보자에게 15억여원을 빌려준 사업가 박모씨와 관련, “천 후보자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며, 천 후보자 부인과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천 후보자 인사청

문회에서 “천 후보자가 지난 2004년 8월9일 골프채를 갖고 박씨와 같은 비행기를 탔다는 기록을 확보했다”면서 “이는 두 사람이 함께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증거”라며 ‘가끔 연락해온 사이’라는 천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는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업가 박모씨가 불출석한 것과 관련, 위원회의 결정로 박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

부했다. 박씨는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신사동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15억5천만원을 천 후보자에게 빌려준 인사이다.

한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천 후보자가)공직생활 24년 동안 14억~15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기 드물게 청렴하게 살았다는 판단의 증거”라고 천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

◇‘공안통’ 전력 논란=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영남위원회 사건’, ‘원정화 간첩사건’ 등 천 후보자가 과거 관여했던 공안 수사 당시 기소된 피의자들이 무죄판결 받은 사건을 거론,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MBC PD수첩 작가의 이메일 공개와 관련, “인권침해의 결정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언급, “검찰이 확인되지 않거나 수사 본질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실까지 언론에 흘리며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따졌다.

반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 검찰 공안 부서가 위축되고 공안 출신 검사들이 좌천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 인사 발령에 따라 남들이 기피하는 부서에서 묵묵히 일한 것이 왜 경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아야 하나”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출석, 서류를 검토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천성관 “檢 정치 중립·수사 독립 지켜나갈 것”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13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상실한 검찰은 더 이상 검찰이 아니라 비정당한 각오로 직무에 임할 것”

이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당당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법집행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변할 수 없는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소임”이라며 “법과 질서가 바로 선 안전하고 평온한 사회, 부정부패가 발붙일 곳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

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와 재판에서 국민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인권 파수꾼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며 “강한 자에게는 추상 말고 약한 자에게는 불법처럼 따뜻한 정의로써 검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천성관 후보자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 “공익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부득불 공표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인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적절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야 미디어법 힘겨루기 본격화

민주당 “4주간 새 임시회 열자” 한 “시간 벌기”

국회 의사일정도 합의 못해... 문방위 또 파행

민주당이 13일 6월 임시국회에 전격 등원했지만 여야 간의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하는 등 공전을 거듭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등 국회 3대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 및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갔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부터 4주간 새 임시회를 열 것을 공식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급명간 김형오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단독처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경입장으로 맞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파업을 해 놓고 ‘8월 국회’를 열자는 또 다른 조건을 들고 나왔는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나 대정부 질문 등이 가당키나 하느냐. 거부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일이라도 국회의장을 찾아가 미디어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

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을 성실하게 하려면 최소 4주 정도가 필요하다”면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국회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디어 관련법 주무 상임위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민주당의 회의장 봉쇄로 파행을 겪었다.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한 합의의 도출이 어렵게 되자 일단 정회한 뒤 오후 속개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처리 가능성을 우려하며 회의장을 기습 봉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盧 서거 직전 “모두 내탓, 책임지겠다”

한명숙, 개인 블로그에서 전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 전 친인척 비리의혹과 관련, “결국 모든 것이 수신제가를 하지 못한 제 탓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어야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5월2일 봉하마을을 찾아 마지막으로 봤는데, 대통령께서는 국민에 대한 죄송스러움으로 깊은 자책감에 빠져 계셨다. 불면으로 인해 뺨하진 눈으로 제게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5월2일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 밤샘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날이다. 한 전 총리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책임’이 초개와 같이 당신의 몸을 던지는 일인 줄은 몰랐다. 백척간두 아래로 자신을 던져 세상의 부조리에 항거하려는 단심(丹心)인 줄은 차마 알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희생이, 당신의 마지막 대속(代

贖)이 떠난 줄 알았던 국민의 발걸음을 돌려세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또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찾은 자신에게 “권력을 권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진보를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경영을 위해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국민통합을 말했지만 결국 국민을 통합하지는 못했다. 현실의 제약과 벽이 너무 견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2월29일 이창동 감독과 문성근씨 등 문화계 친노 인사들과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난 자녀들이 다 떠난 줄 알았다”며 참여정부에 대한 진보세력의 이탈을 안타까워했다고 한 전 총리는 전했다.

당시 일부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만찬에서 “그만두고 싶다”며 조기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주위에서 만류했다고 보도해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DJ 폐렴 여부 검진차 임원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4시40분께 폐렴 증상이 의심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

김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이날 “지난 주말부터 감기 기운과 미열이 있어 폐렴 여부에 대한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건의로 입원했다”며 “김 전 대통령은 휠체어를 타고 걸어서 병원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4일 예정됐던 김 전 대통령의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은 취소됐다.



김 전 대통령의 병세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초기 폐렴 증상은 확실하지만 위독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를 해봐야 말할 수 있었지만 일단 위독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오늘은 그냥 입원만 한 것이 고 내일쯤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8월과 9월에도 폐렴 증세로 입원했으며, 지난해 7월말에는 건강검진차 입원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아무도 믿지 말고 한빛고시학원만 따르라!! www.hanbitgosi.co.kr

정부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 특채 통해 3년간 기능직 정원의 15%씩 일반직 전환!!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특채

주말반(토/일) 오전 10:00 ~ 13:00 시 11:00 | 오후 14:00 ~ 17:00 평정학

2개월완성 합격맞춤강의 개강 7월 18일

2009년 7월 14일 한빛고시학원 대표강사

수석합격

모직! 일반직전환 특채대비를 위한 전문강사진 전문교재

핵심이론과 짚집게 문제풀이 특강

일반직 전환특채 합격도 한빛이 주도한다!

압도적 1위! 100%적중도전

전국 최강의 강사진, 최고의 시설에서 당신은 수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 고시학원의 대표브랜드 -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암] 10621234-0234